

국립민속박물관

Paju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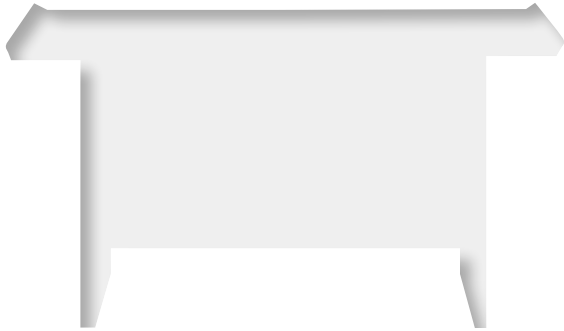


한글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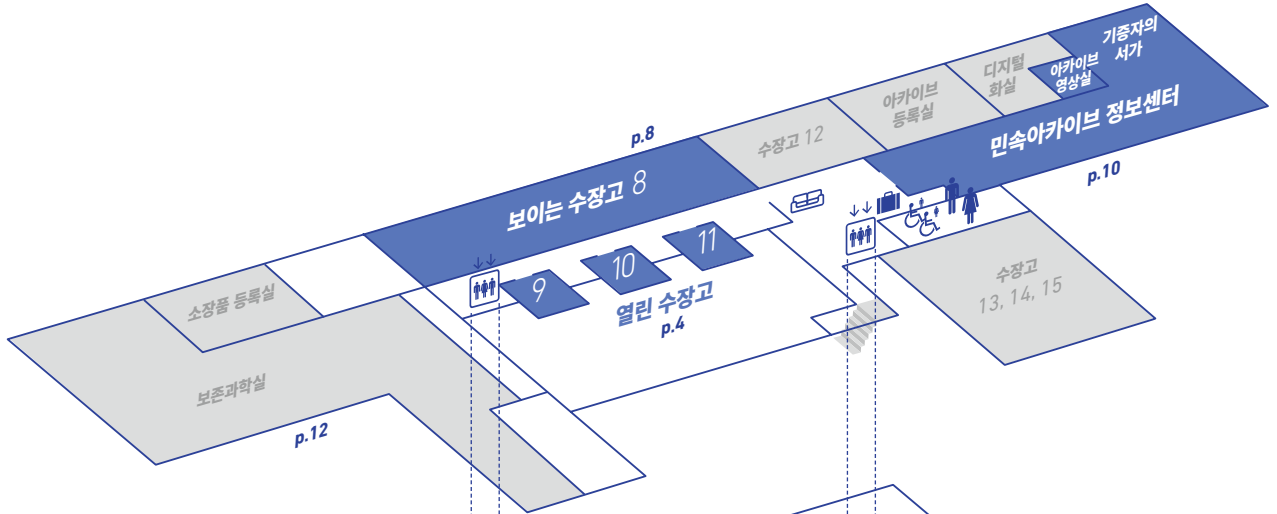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는 경기도 북부지역 첫 국립박물관으로 2021년 7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는 유물과 아카이브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장고에 전시기법을 접목하여 관람객과의 거리를 좁힌 개방형 수장고입니다. 총 15개 수장고에 약 130만 점 이상의 소장품과 아카이브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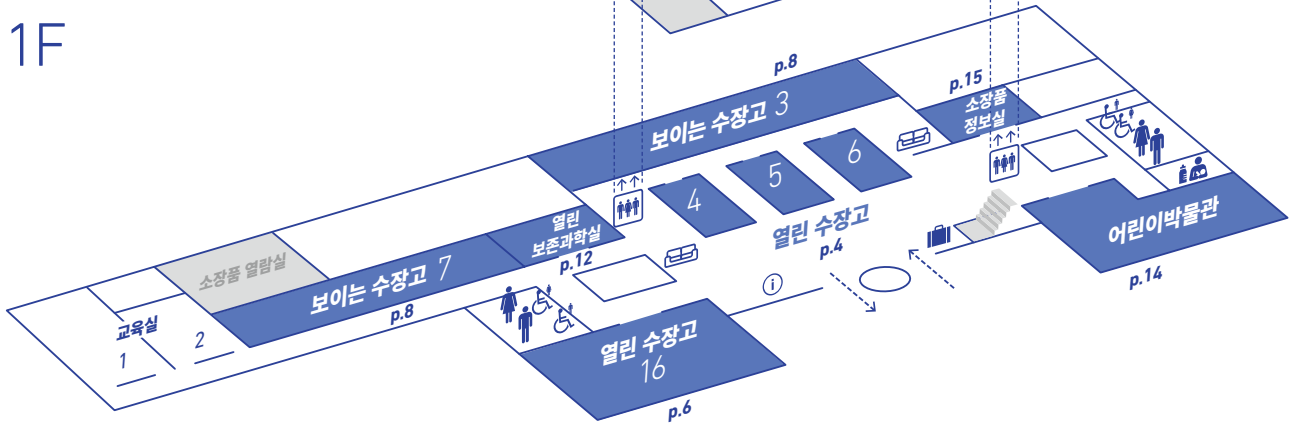


관람 안내도

2F



1F



- | | | | | | |
|--|---------|--|-------|--|-------|
| | 안내데스크 | | 물품보관함 | | 개방영역 |
| | 엘리베이터 | | 휴게 공간 | | 비개방영역 |
| | 화장실 | | | | |
| | 장애인 화장실 | | | | |
| | 수유실 | | | | |

관람 추천 동선

- 1F 열린 수장고 4·5·6 → 보이는 수장고 3 → 소장품 정보실 →
- 2F 민속아카이브 정보센터 → 보이는 수장고 8 → 열린 수장고 9·10·11 →
- 1F 열린 보존과학실 → 보이는 수장고 7 → 열린 수장고 16



열린 수장고

4·5·6
9·10·11

열린 수장고는 관람객의 출입이 가능한 개방형 수장고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는 총 7개의 열린 수장고가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 열린 수장고는 햇빛과 온습도에 영향을 덜 받는 소장품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린 수장고 4·5·6은 해주항아리, 옹기, 맷돌 등 음식저장용기, 9·10·11은 향로, 약절구, 고기잡이 도구 등 생활용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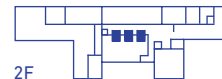
4·5·6

보관소장품
도자기, 토기, 석재 유물
온도/습도
20±4°C/50±10%



9·10·11

보관소장품
도자기, 토기, 석재 유물
온도/습도
20±4°C/50±10%



소장품 검색



열린 수장고 16

열린 수장고 16은 소반, 떡살, 반달이 등 대표적인 목재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유물과 현대 작가의 작품이 함께 어우러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민속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관소장품
목재 유물
온도/습도
20±4°C/55±5%



소장품 검색



보이는 수장고 3, 7, 8

보이는 수장고는 복도 벽면의 통유리창을 통해 수장고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과 2층에 총 3개의 보이는 수장고가 있습니다.

보이는 수장고 3은 화로, 동전, 호미 등 금속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수장고 7은 새로 수집한 자료를 등록 전까지 보관하며 소장품 등록을 진행하는 수장고입니다.

보이는 수장고 8은 반달이, 지게, 샷 등 목재, 초제 소장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장품 검색

3

보관소장품

금속 유물

온도/습도

$20 \pm 4^\circ\text{C} / 45 \pm 5\%$



1F

7

보관소장품

복합 재질 유물

온도/습도

$20 \pm 4^\circ\text{C} / 50 \pm 5\%$



1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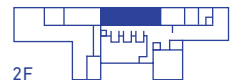
8

보관소장품

목재, 초제 유물

온도/습도

$20 \pm 4^\circ\text{C} / 55 \pm 5\%$



2F



민속아카이브 정보센터

민속아카이브 정보센터는 우리 생활과 민속 관련 다양한 사진, 영상, 음원 등의 기록물을 수집·보관하고 있으며,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와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만 점 이상의 아카이브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 아카이브가 되다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민속아카이브의 역할과 활동을 소개하고, 아카이브 대표 자료를 전시합니다. 자료 등록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증자의 서가

민속아카이브에 자료를 기증한 기증자와 기증품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매년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어 다양한 기증 컬렉션과 관련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영상실

민속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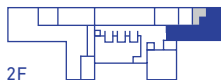
디지털화실*

스캐닝 또는 인코딩 장비를 활용하여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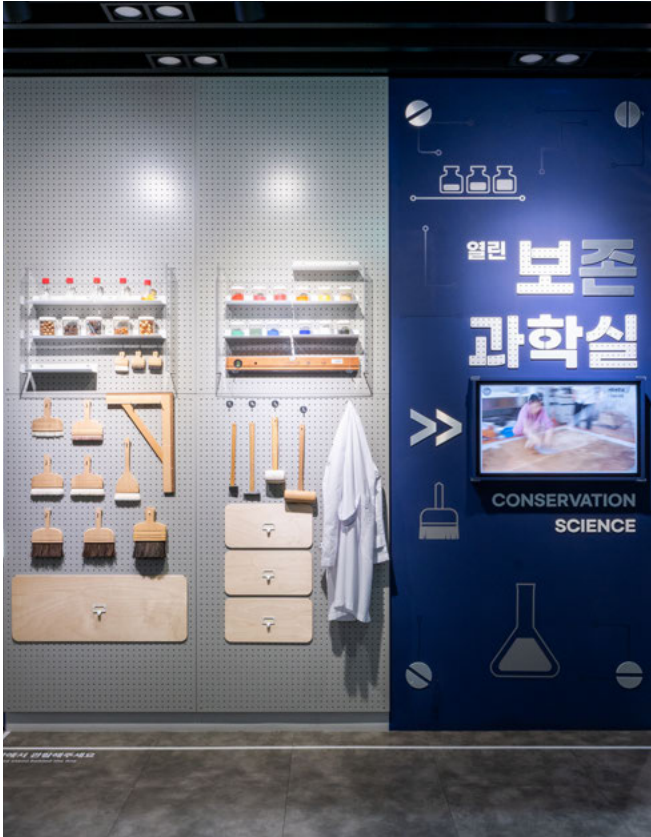
* 비개방 영역



아카이브 검색



2F



열린 보존과학실

문화유산 병원인 보존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분석, 보존처리, 환경제어 등 다양한 연구영역을 간접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화유산을 수집·보관·전시하는 과정에서 보존과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존과학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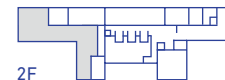
박물관 소장품을 보존처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서화·직물·목재·금속 보존실 및 X-ray실과 분석실·보존환경실이 있습니다.



열린 보존과학실



보존과학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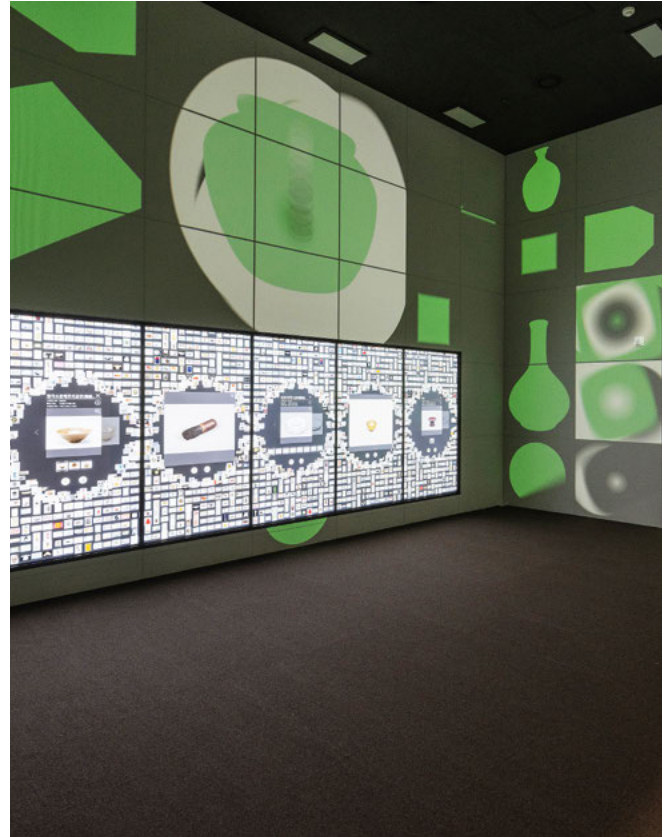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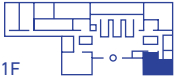
* 비개방 영역



어린이박물관 반짝반짝 폴짝콩짝

어린이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를 방문한 36개월 이상 7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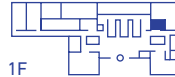
어린이의 소중한 장난감이 박물관 소장품이 되어가는 과정을 「위시켓 매직 카드」와 함께 체험하는 탐구형 전시입니다.



소장품 정보실 인터랙티브 미디어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정보를 미디어아트 영상과 함께 탐색하는 공간입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소장품 사진을 선택하면 해당 소장품에 대한 명칭, 특징, 보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소장품 사진을 선택하여 QR코드로 연동하면 모바일로 사진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연혁

- 1945 국립민속박물관 창립
- 1946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 1950 국립박물관에 흡수 통합
- 1966 한국민속관 개관
- 1975 한국민속박물관 개관
- 1979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직제 개편
- 1992 문화부 제1차 소속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직제 개편
- 2014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확대 이전 및
파주 개방형 수장고 건립 계획 추진
- 2016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방형 수장고 설계 공모
- 2020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방형 수장고 건립 공사 완료
- 2021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개관

건축 소개

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규모 10,202㎡(연면적), 65,416㎡(부지면적)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는 개방된 공간(Open Building), 개방된 소장품(Open Collection), 개방된 기관(Open Institution)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2016년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설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당선작은 (주)신한종합건축사무소의 “시간(示間)”으로 “시간이 보이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사이를 시간의 쉼과 보고, 수장고를 켜가 쌓여 있는 공간으로 기획했습니다. 과거의 유물을 단순히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수장고의 시각적 개방감을 강조했습니다.

이용안내

<u>관람시간</u>	화 ~ 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마감 오후 5시 30분)
<u>휴관일</u>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관 /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 대체휴관
<u>입장료</u>	무료

어린이박물관

<u>관람대상</u>	36개월 이상 ~ 7세 이하 (보호자 및 인솔자 1명 필수)
<u>관람방법</u>	누리집 사전 예약 (잔여석 당일 현장 발권)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u>관람문의</u>	031-580-5895

오시는 길

버스

경기도 광역버스 2200번, 2200-1번, 경기버스 900번,
파주버스 37번 탑승 후 ‘맛고을·국립민속박물관’ 하차, 도보 5분

자가용

파주시 성동사거리에서 헤이리 예술마을 방향으로 진입 후
3차선의 유도로를 따라 우회전, 200M 직진 후 좌측 주차장 이용

주차

운영시간 화 ~ 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 주차는 관람객에 한해 가능합니다.
- * 운영시간 외에는 입출차가 불가능합니다.
- * 주차장 내 발생하는 사고,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차주)에게 있습니다.

- * 상기 내용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